코로나 잊게 하는 '오케스트라 광명진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 연주회 '부처님을 노래하다 II'

10월 26일 오후 7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명진언' 최초로 공개해
찬불가 · 피아노콘체르토 등 다양한 레퍼토리
동국대 힐링코러스 · 황상미 · 전장수 등 출연

"잠시나마 대중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
모두의 새로운 출발에 용기 희망 드리고 싶어"



1999년 창단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창단 후 꾸준히 정기연주회와 산사음악회 등 각종 음악회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2017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모습.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서양 클래식 음악과 불교를 접목해 음성포교의 길을 넓혀온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하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10월 26일 저녁 7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제29회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처님을 노래하다 II'를 개최한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 개최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가곡과 찬불가, 아리아 등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2019년 강형진 단장이 작곡해 초연한 '광명진언' 합창곡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 처음 선보인다.

광명진언 합창곡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두운 미망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광명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으로, 진언을 반복하며 마음 깊은 곳 밝은 지혜를 만나듯, 도입은 아주 작은 소리로 시작하여 같은 주제의 멜로디가 반복되다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점차 힘찬 소리로 바뀌어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처님을 노래하다 II'의 부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13년 KBS 1TV 'KBS 중계석'으로 방송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부처님을 노래하다 I'을 잇는 것으로, 동국대학교 불교음악아카데미 동문으로 구성된 동국대 힐링코러스(단장 김흥순)와 강사진이 함께한다. 백윤학(영남대학교 교수) 지휘자를 필두로 소프라노 이정화, 소프라노 황상미, 피아노 김태연과 특별출연자로 클래식 기타 연주가 전장수가 출연해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대중들에게 힐링의 음악을 전한다.

△공연 1부에서는 고난에 처한 대중에게 가장 필요한 진언인 광명진언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명진언'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황상미의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C. Gounod)', '환상의 부처님(서근영 작사 · 작곡)', 힐링코러스의 '바람(최영철 작사 · 작곡)', '남촌(김동환 작사, 김규환 작곡)'이 이어지고, 전장수(기타)가 연주하는 스페인 대표 작곡가 타레카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인생의 단순하고 처절함을 제목과 곡조로 잘 표현한 영화 주제곡 '카바티나'가 이어진다. 동국대의 중창 '첫사랑(시, 김효근 작곡)', '좋은 인연(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작곡)'에 이어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연주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박춘석 작사 · 작곡)'이 이어진다.

△공연 2부에서는 김태연의 피아노 연주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No.21 KV467 2악장'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이정화의 '그리운 금강산(한상억 작사, 최영섭 작곡)', '보석의 노래(C. Gounod)', 힐링코러스의 '마음의 법신 성불(법륜 작사, 박이제 작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푸시킨 시, 최가희 작곡), '아리랑 모음곡(이선택 편곡)이 이어지고,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찬불가 '연꽃 피어 오르리(덕신 작사, 김회경 작곡)', '자비하신 부처님(덕신 작사, 김경숙 작곡)'이 대미를 장식한다.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은 "코로나로 모두 위축되어 모임 자체가 힘든 때에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꾸준히 모여 연습해 온 동국대 힐링코러스와 함께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많은 분들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에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1999년에 강형진 단장의 원력으로 체임버 형식의 소규모 실내악단으로 출범했다. 2002년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면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단 후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열고 매년 산사음악회와 결식아동돕기 음악회, 근로자를 위한 열린음악회 등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며 음성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2005년 해체의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불교계 안팎의 후원과 흔들리지 않는 단원의 불심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 함께하는 힐링코러스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에서 찬불가 지도사 1 · 2급과 힐링스쿨 수강생 동문합창단이다. 지휘 이정화, 반주 김태연, 김흥순 단장을 주축으로 40여 명의 합창, 중창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발족식을 시작으로 여러 음악회를 통해 많은 발전과 레퍼토리를 넓혀가고 있다.

2014, 2016, 2017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 특별출연, 2016, 2017 중동난민 돕기 자선음악회, 건봉사 불이문화제 특별연주, 선운사 산사축제 찬조출연 등 공연과 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석 3만 원이며 공연 및 티켓 문의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사무국(02-415-2599)으로 하면 된다.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 1주년 기념전

'시공의 인연을 보다'展, 하이원그랜드호텔 10월 19일~11월 4일



장이규 作, 정암사의 여름

태백산 적멸보궁 정암사(주지 천웅)가 수마노탑 국보승격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정암사는 개산문화제가 열리는 10월을 맞아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강원랜드 하이원그랜드호텔 5층 컨벤션 로비에서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 1주년 기념 회화 13인 전 '시공의 인연을 보다'를 개최한다.

지난 8월 정선 삼탄아트마인과 라메르 갤러리 전시에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보물이었던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제332호)로 승격됨을 널리 알리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 12인과 정선군 사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 1인이 참여해 수마노탑과 정암사 관련한 작품 39점을 선보인다.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과 아울러 5대 적멸보궁인 정암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전시회는 정선과 서울로 이원화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선정된 13인의 참여 작가들에게 수마노탑과 정암사를 주제로 한 작품을 2점 씩 의뢰했으며,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의 세계관이 뚜렷한 작품 13점을 함께 전시한다.

전시에 앞서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13인 작가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정암사와 수마노탑의 유래와 자장율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작가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 현장 스케치를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

정암사 경내에서 약 100m 위에 떨어진 적멸보궁 뒤편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는 수마노탑은 높이 9m, 지대석 너비 3.04m, 상륜 높이 1.7m의 탑으로 6.5~5.8cm, 두께 5~7cm의 크고 작은 모전석으로 쌓은 탑이다.

지대석은 모를 죽인 화강석으로 6단을 쌓았으며, 탑신부를 받치기 위해 모전석재로 2단의 괴대를 마련했다.

정암사 수마노탑은 형태가 정제되고 기법이 정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개우각 추녀 밑의 상향은 고려시대의 양식을 잇고 있고, 청동제 상륜의 투각수법 또한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탑 앞의 배례석에 새겨진 연화문이나 안상문 등도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3층 옥신부터 기단부 사이에서 5개의 탑지석이 발견됐고, 기단부 최하단석 밑의 적심부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청동합, 은제외합, 금제외합 등의 사리장엄구, 염주, 금구슬 등이 발견되어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탑지석에 의하면 탑의 현재 모습은 1653년 중건 때의 모습으로, 탑 앞의 배례석과 기타 경내에 남아있는 여러 유물과의 비교 · 검토에서 그 초층의 하단은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 6월 보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32호로 승격된 정암사 수마노탑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국보 지정을 신청했지만 근거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었다. 전시문의 정암사 033-591-2469.

박재완 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